

남과 북

김 종 록*

1960년대 말, 내가 프랑스어 연수를 위해 파리에 유학하던 시절만 해도 그곳에서 만난 보통 서양 사람들은 한국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게 없었다. 웬만한 식자층조차도 흔히 나를 보고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고 물어왔다. 아니라고 답하면서 어디 한 번 알아 맞춰 보라면, 월남인 또는 태국인, 필리핀인, 말레이시아인 하다가 마침내는 미국인이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윽고 내가 한국인이란대 내가 그들이 만난 최초의 한국인이란대서 곧 다음 질문으로 남한사람이냐 북한사람이냐고 물어왔다. 그리고 남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다소 실망한 표정으로 남한은 살기가 어렵고 날씨조차 몹시 춥다는데 용케도 유럽까지 왔대며 한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쓰느냐 일본말을 쓰느냐, 음식은 주로 어떤 것을 먹느냐, 의복은 일본 옷 같은 것을 입느냐는 등 질문이 끝이 없었다. 그들은 한국전쟁 당시의 비참한 남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당시 그들의 머릿속에는 대체로 남북관계란 항상 북이 더 부유하고 정통성이 있으며 현대적 민주국가로 의식하고 있었다.

미국 남북전쟁과 베트남 상황 등 역사적 현실이 그렇고 또한 흔히 남북관계라 하면 선진국이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하여 북을 대표하고, 후진국이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하여 남을 대표한다하여 남북관계란 곧 선진국과 후진국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이라고 칭하지만 서양의 언어로는 북이 먼저고 남이 나중에 와 북남관계가 되기도 하다.

실제로 1960년대 당시는 북한이 남한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더 비교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나는 당시 프랑스 북쪽 '캥'이란 도시의 대학(Universite de Caen)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학 주최 국제 친선 파티가 있어 모처럼 기회라 여겨 아내로 하여금 한복을 차려입고 참석키로 하였다. 학생신분이라 차가 없어 버스를 타고 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신사가 반갑게 다가오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아는 체를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한복이 신기한 듯 많은 주위 사람들이 흘깃거리고 혹은 무슨 옷

* 전 주자이르대사

이냐고 물어보기도 하여 몇쩍던 참에 무척 반가웠다.

그는 자기는 스위스 사람으로 얼마 전까지 판문점에서 휴전감시원으로 한 2년간 한국에 있었노라며 반가워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자기가 겪었던 나쁜 경험을 얘기하면서 남북이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인데도 너무 달라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1970년대 초 내가 어느 아프리카 지역 공관 2등 서기기관으로 근무하던 때였다. 당시 대사관 직원이라야 대사와 2등 서기관인 나 그리고 현지직원 7~8명이 직원의 전부였다. 따라서 나는 그때 정무, 경제, 홍보, 영사, 등 대사관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을 때였다.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의 최대 일간지의 편집국장이 좀 만나자는 전갈이 왔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는 유신직후라 여러모로 언론과 접촉할 사항이 많던 때라 기꺼이 내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윽고 그는 기자 한명을 대동하고 내 사무실에 와서는 대뜸 광고 부락을 하였다.

다음 달에 있을 그 나라 국정일에 즈음하여 특집을 예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을 달라는 것이었다. 광고는 그냥 핑계이고 당시로는 거금에 속하는 1만 불을 요구하였다.

나는 몹시 난처해 공관사정이 그리 여윌롭지 못한 점을 설명하고 요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 편집국장은 얼굴을 붉히면서 가방 속에서 신문철을 내놓으면서 자기들은 한국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힘써주고 도와주었는데 그 정도 호의조차 거절하면 도리가 아니

라며 분기탱천하였다. 나는 다소 미안스럽게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친구와는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하여 자세를 낮추어 우선 그의 분을 누그러트리고자 꺼내 놓은 광고며 사진을 드러다 본 나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꺼내놓은 사진이며 신문 광고는 김일성 사진이며 김일성 주체사상 기사들이었다.

그는 남과 북을 혼동하고 있었다. 아니 남과 북 자체를 모르고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나는 이윽고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봐가며 그 사진은 북한의 주석(대통령) 사진이며 기사는 북한 정치선전 기사라고 하자 그는 기겁을 하며 보따리를 사들고 도망치 듯 내 방문을 나서는 것이었다.

하기야 세계지도를 놓고 보면 한반도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라인데 거기다 남과 북으로 갈려 있으니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1970년대 중반 내가 파리에 근무하고 있을 때다. 그때 마침 키신저 미국군무장관이 비밀리에 북경을 드나들며 미·중 수교를 성사시키더니 마침내 괌 선언(Guam Doctrine)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 무렵 한반도에서는 남북이 7·4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남북한이 대치상태를 지양하고 평화 공존 체제로 전환 하는 듯한 양태를 보였다. 당시 냉전체제 하에서는 대단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져 유럽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그때 유럽에서는 강대국인 미·중·소가 자의대로 한반도 문제를 재단하게 됨에 따라 남북 양당사국이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결정짓겠다는 결의의 표시가

7·4 공동성명이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르몽드 사설에서도 이와 흡사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보기에 따라 무척 호의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고소(苦笑)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 국제문제연구소에서 극동정세 특히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세미나가 있다 하여 참석한 적이 있었다. 세미나에서는 여러 발표자들이 대체로 미·중 수교의 의의와 광 선언 그리고 7·4 공동성명에 대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연구를 해서 발표하여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석학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1905~1983) 교수가 유독 7·4 공동성명을 혹평하면서 한민족자체를 비하하는 발언조차 하여 여간 당혹스럽지 않았다. 그는 우선 7·4 공동성명은 남북한이 각자 정략적으로 의기가 투합하여 만들어낸 사기극이라면서 후일 역사의 정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한민족은 5천년 역사를 갖는 문화민족이라고 하나 기실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다. 우선 20세기 초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될 때 전쟁다운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우습게 나라를 빼앗긴 일, 그리고 일본의 가혹한 통치 36년동안 저항(레지스탕스)다운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그는 3·1운동 또한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운동으로 폄하함), 2차대전 후 국토가 분단되어 민족끼리 서로 대치하다 세계전쟁사상 가장 극렬하고 잔인한 한국전쟁을 3년씩이나 치루며 동족상잔을 일

으켰던 점, 그리고 세계에서 보기 드문 독재정권 하에서, 북한 인민들은 저항다운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죽여 엎드려 있는 민족이라고 혹평하였다. 그리고 남한 국민들도 이들과 별다르지 않다며 군사정권과 유신정치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때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기도 하였으나 소련 방문 후 반공주의자로 전향한 정치학자로 우리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적도 있었다. 나는 그때 그의 한 민족 비하 발언에 상당히 흥분되어 현장에서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마침 시간이 없고 모두가 제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서면으로 강력한 반박론을 보낸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남북문제는 나의 젊은 시절 외교관 생활을 통해 가장 큰 부담으로 나를 속박하였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남북 외교전쟁은 1970년대 동서 냉전시대에 극에 달해 총력외교 체제로 대치하다가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 이르러 드디어 총회가 남북 양측 상반된 통일 방안을 각각 통과시키는 해프닝을 연출하는 기현상을 초래하면서 유엔에서의 남북대결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는 1970년대를 지나 남한의 수출 100억 불 달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하여 그 후 남과 북의 비교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북한 김일성 사망에 따른 김정일 부자 세습독재정치와 실정으로 인한 경제의 낙후, 그리고 남한의 경제 발전과 88올림픽 개최 등으로 더 이상 남과 북의 비교

는 용납되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는 바야흐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것은 남한이라는 인식이 커져갔다.

1980년대 초 내가 벨기에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때였다. 벨기에는 국토면적 3만 평방키로(남한의 1/3정도)에 인구 약 1천만 명 정도인 소왕국이나 국민소득이 3만 불이나 되는 서구 선진 복지국가이다.

또한 수도 브뤼셀에는 EC(지금의 EU)의 집행위 사무국이 자리 잡고 있어 가히 유럽의 수도와 다름이 없었다. 나는 그곳에 약 3년간 근무하였는데 참으로 많은 보람을 누렸다. 무엇보다도 벨기에는 지리적으로 서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나라라 자동차로 약 2시간만 달리면 프랑스요, 네덜란드며, 독일이고, 룩셈부르크이며, 바다만 건너면 영국 땅이라 주말이면 여러 곳을 여행하며 나름대로 생활을 즐기기도 하였다.

한 번은 가족과 함께 파리에 무슨 국제 전시회가 있어 참관하고 벨기어로 돌아오려고 국경지대를 지나려니 사고라도 있었는지 많은 차들이 국경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하여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은 유럽이 정치적으로 통합되어 유럽연합 내 국경 같은 것이 아예 없어졌지만 1980년 대 당시만 해도 국경 초소가 있고, 형식적이긴 해도 초소 앞에 가면 차량들은 서행으로 통과하던 때였다.

그런데 그날은 초소에 양국 경찰들이 늘어서서 일일이 차창을 열고 통과 객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어 나는 별생각 없이 여권을 건 내 주었는데 내 여권을 받아든 그 경찰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내 차를 옆으로 주차하라

고 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지시대로 차를 옆에다 주차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 경찰은 잠깐 기다리라면서 어디를 갔다 오더니 커다란 신문지만한 조서 용지를 식구수대로 5장을 주면서 우선 전부 기록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난감한 생각이 들어 그 용지를 살펴 보았더니 가족 란만 해도 나의 부모는 물론 조부모와 외조부모 성명 생년월일 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해외여행기록 등도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어 다 작성하자면 서너 시간도 넘게 걸리게 생겼다. 나는 그만 화가 나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는 당신네 나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이걸 반드시 적고 본부에 조회를 해야 국경지대를 통과할 수 있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때야 나는 비로소 그 경찰이 남북한을 잘못알고 있구나 싶어 나는 남한 외교관으로 거의 매달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고 말해 주었더니 그는 남한 외교관이냐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금방 태도를 바꾸어 상냥해지면서 내 여권을 돌려주었다. 그는 남한은 ‘사우스 코리아’이며 북한은 리퍼블릭 어찌고 하는 코리아라고 알고 있었다고 실토하면서 멧쩍게 웃었다.

그 이후 나는 어디를 가나 국적을 물을 때는 남한(South Korea, Coree du Sud)이라고 말하지, 결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말하여 혼란케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세월이 흘러 내가 은퇴하여 대학에서 고향 후배들을 가르칠 때도 잊지 않고 말해주는 대목이다.

1990년대 초 내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대사로 있을 때였다. 그곳은 남북 대

치 공간으로 북한 대사관은 직선거리로 약 500미터(두 블록)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당시는 동서독이 통일되고 동구권이 붕괴되는 시기라 그들 북한 외교관들은 공공장소에 잘 모습을 들어 내지 않고 무척 의기소침 했던 때였다. 냉전시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나 중동 등 비동맹권 제3세계에서는 늘 그들이 더 도전적이었고 매사 적극적이었지만 당시는 사정이 달랐다. 그들은 조용해지고 양순해졌다. 당시 북한 대사 또한 나와 같은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파티 장소 등에서 종종 만나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곤 하였다.

그러나 그곳 외교가에서는 우리 남북 대사 둘 다 김씨이니 혹 가족관계가 아닌가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 설명하는데 많은 애를 먹기도 하였다.

한번은 어느 리셉션에선가 마침 거기 있는 북한 대사와 잠시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사진사가 우리의 스냅 사진을 찍었다. 북한 대사는 그만 사색이 되어 화를 내면서 그 사진사를 다그쳐 기어이 필름을 뽑아 빼앗아 버렸다. 그 사진사는 같은 코리안 끼리 다정하게 함께 있는 것이 보기 좋아 촬영한 것인데, 왜 그러느냐고 무척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느 파티 장소에서 그를 만나 현금의 국제정세로 보아 이제 곧 통일이 될 것 같은데 통일되면 한강이나 대동강에서 서로 만나 소주나 한잔 하자고 농을 건넸더니, 그는 그만 덜컥 화를 내면서 공화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은 동구권 몰락과 함께 패배주의가 만연하고 있었던 듯하였다.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나도 이제 정년퇴직을 한 몸이지만 남북관계는 실로 많이 변화된 것 같다. 곧 망할 것 같던 북한이 어느새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이제는 남한을 넘보는 시대가 된 것 같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세가 보다 미묘해지면서 남북한 해법 또한 다양해진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함께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 내 30여 년 외교관 생활동안 그렇게도 집요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남, 북문제가 언제쯤 사라질지 사뭇 걱정이 앞선다. 하루 속히 남북이 통일되어 평화롭게 함께 남북문제를 잊고, 살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외고**